



50만 북경올림픽 자원봉사자 영어평가교육시스템 G-TELP(지텔프)



北京2008年奥运会语言培训服务供应商
Beijing 2008 Olympic Games Language Training Services Supplier



2008 북경올림픽 자원봉사자 영어평가교육, G-TELP시스템으로 완벽 준비

훈련된 올림픽자원봉사자만 50만명, 관관 안내 통역 완벽 준비

공인영어평가교육 시스템 G-TELP(지텔프)가 88올림픽에 이어 08북경 올림픽까지 자원봉사자 영어 평가 교육 훈련 시스템으로 선정되어 북경올림픽 자원봉사자 영어 평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경 올림픽 자원봉사는 50만명 규모이다. 현재 50만 2008북경 올림픽 자원봉사자 영어 평가 교육 훈련은 G-TELP 평가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중이다.

G-TELP 영어평가 교육시스템을 주관 운영사인 미국 ITSC(국제테스트 연구원)과 2008년 북경 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랭귀지평가교육서비스 공급업체인 중국 AI-FLY(2008 Olympic Games Language Training Services Supplier)사는 북경 올림픽 공식 요원 자원봉사자 영어평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G-TELP 평가시스템과 교육프로그램, 교육 교재들을 활용하고 있다.

지텔프코리아는 ITSC(국제테스트연구원) 글로벌 파트너로서 영어평가교육 전문기관으로 1987년부터 우리나라에 G-TELP 영어평가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지텔프코리아는 우리나라 공식 '항공영어말하기능력자격을시험' 시행기관으로 UN,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함께 전 세계 180여 개 나라에 항공영어말하기 평가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평가 교육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다.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영어스피킹테스트 분야에서는 ITSC(국제테스트연구원)에서 개발 주관하는 G-TELP가 대표적인 시험이다. 우리나라 작년 G-TELP 영어말하기시험 응시 인원은 21만명에 이른다. 이번 북경올림픽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는 50만명 규모이다.
(G-TELP영어평가교육문의 1588-0589)



전경련, G-TELP 등 실질적 언어구사능력 평가 추진

재계에선, ToEIC 시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

재계에선 토익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언어구사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대체하고, 대학에선 실질적인 영어교육을 해달라 호소하고 2003년부터 연구 계획하고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3년부터 영어시험을 토익에서 영어말하기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계획하고, 영어시험을 토익(ToEIC)에서 지-텔프(G-TELP)등으로 언어구사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다른 시험으로 대체할것을 회원사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검토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제인 연합회에서는 대학이 기업에서 원하는 졸업생을 양성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와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재가 일치하지 않는 인력의 미스매칭(Mismatching)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실무형 과목,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을 포함시킬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기업 인력평가 시스템도에 대해서도 지적 한바, 입사자 영어평가도 현재 널리 채택되는 토익(TOEIC) 대신 언어구사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다른 시험으로 대체할것을 추진할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는 토익 점수가 높아도 영어회화 능력이 떨어 지는 예가 많다는 불만이 많다"며 "지-텔프(G-TELP)등 언어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공인 영어시험 3~4개를 복수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경제인연합회, 영어시험을 토익(ToEIC)에서 지-텔프(G-TELP)등으로 언어구사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다른 시험으로 대체 검토할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나 전경련은 실천방안으로 이런 계획 전략 발표 뿐만 아니라 직접 대학이나 현장에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나 핵심 임원진이 직접 나서 대학 현장에서 기업의 실상을 설명하는 기회를 넓히는 데 주력하여 실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계의 연구 실천 노력이 오늘날 영어시험을 토익위주 점수위주 시험에서 영어를 실제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영어말하기시험으로 대체하고, 영어구사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채용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계기 환경을 만들었다 할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은 대학의 의무사항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이러한 요구와 노력에 부응하여 대학교 영어 교육이 보다 전문화 다양화 되고, 전문 분야에 따른 실질적인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는 표현 영어 교육 중심으로 변화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어를 잘해야합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어와 더불어 영어도 잘해야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단순히 영어를 말하고 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어는 세계 공통의 비즈니스언어, 커뮤니케이션 랭귀지로서 기업경쟁력확보, 국가경쟁력 향상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G-TELP 채용 NEWS



국내 중대형 기업들, 신입사원은 학벌보다 능력을

동부그룹(www.dongbu.co.kr), SK그룹, 신세계 그룹(www.shinsegae.com),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www.dreamhyundai.com)을 비롯한 많은 중견대기업들은 올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입사를 위한 공채를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사 지원에 있어 전반적으로 열린 채용을 통해 학점과 학벌은 중시하지 않고,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변화된 채용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지원자의 역량 평가와 조직문화에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 면접제도와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 토익,토플 점수 제한의 완화/폐지 33.3% ▲ 인.적성 검사의 도입 27.8% ▲ 학점제 완화/폐지 22.2%으로 나타났으며 ▲ 영어인터뷰의 도입/강화가 5.6% ▲ 자격증 가산점 제도 강화가 5.6%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기업의 70%는 영어인터뷰를 실시하며 토익점수 만으로는 업무상 필요한 영어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대.기아차는 학점과 토익을 중시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SK 그룹은 영어시험을 G-TELP로 실시해 난이도를 높였다.

LG전자 2008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 GLT 제출

"Great Company, Great People"

Let's make a true global organization that is religiously obsessed with creating value.

LG전자에서는 2007 하반기 신입사원 정시채용을 실시하며 지원자격으로 어학성적 G-TELP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공계는 GLT 60점 이상, 인문계는 GLT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만 응시 가능하다.

현대오토넷 신입공채 지원 G-TELP성적증명서 제출

현대오토넷은 대졸신입공채로 연구개발, 생산기술·품질, 영업지원분야를 모집하며,이공·인문계열의 대졸학력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단, 2006년 이후에 취득한 어학성적 G-TELP등을 출해야 한다. 서류 실무진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동부그룹 채용에 구술 작문 시험 제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구술2급 이상. 승무원채용 3급이상 인터뷰 면제

부산항공 승무원채용 구술 우수자 우대

제주항공 지텔프 구술 우수자 우대 등.